

5) 양서·파충류

순천시의 서쪽으로 보성강이 흐르고, 동쪽에는 황전천, 남쪽에는 남서방향으로 이사천이 흐르며, 동천이 순천시를 관류한다. 환경부의 『8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양서, 파충류 조사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 분포하는 종은 도롱뇽,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 도마뱀, 실뱀, 무자치, 구렁이, 까치살모사이다. 맹꽁이, 두꺼비, 옴개구리, 유혈목이, 금개구리, 능구렁이, 살모사, 쇠살모사 등도 기록되어 있다.(별량면 운천리와 송광면 월산리 일대에서 조사된 것이다)

전라남도 전체에 분포하는 종으로는 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유혈목이, 능구렁이, 무자치, 까치살모사, 살모사 8종이다. 희귀종으로는 꼬리치레도롱뇽, 물두꺼비, 아무르산개구리, 표범장지뱀, 줄장지뱀, 누룩뱀, 쇠살모사 등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래도입종으로 사육했던 황소개구리가 자연생태계에 이입되어 순천만과 보성강계류의 강·하천에 급속히 번성하여 물고기뿐만 아니라 뱀까지 포식하고 있어 자연생태계의 동물상의 먹이사슬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양서·파충류의 대부분을 한국 희귀·위기종으로 보호 관리하는 특정 야생동물로 정하고 있다.